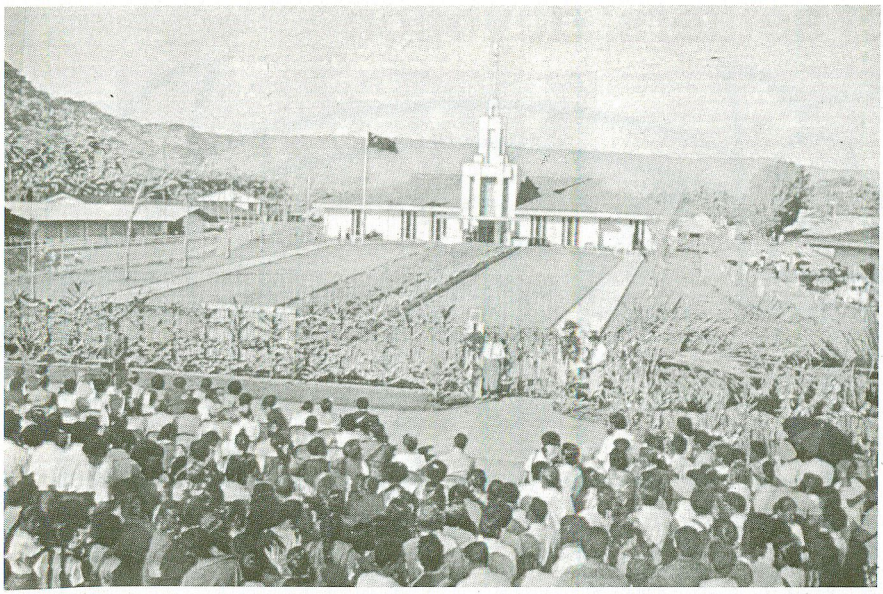
사모아 신전으로 감명받은 섬 지도자들



통가에 세워진 신전을 위해 7월 9일 의식이 집행되었다

아피아 근처의 이 섬을 통과하는 중심가는 정부 고위 관리와 교회 역원들이 공식적으로 사모아 신전을 개관하여 일반에게 공개한 7월 18일 두 시간 동안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두 주 동안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 신전의 시설을 돌아볼 것으로 예상되었다.

서부 사모아주의 족장인 수수가 말리에토우아 타누마필리 2세와 서부 사모아의 수상인 에티 토필라우, 미국인 사모아의 상원 의장인 센 겔리 포우메이 그리고 기타 고관들이 개관식에 참석하여 신전 정문에 가로질러 매어 논 리본을 끊었다. 방문한 고위 관리들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이며 태평양 지역 섬들의 집행 관리자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의 영접을 받았다.

섬 특유의 화려한 열대성 꽃들과 무성한 수풀 그리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고위 관리들은 신전을 둘러보기 전에 그로버그 장로와 말리에토우아 족장의 말씀을 들었다.

"그날 모든 것이 거의 완벽했읍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로버그 장로가 말씀했다.

사모아인 족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이곳 사모아에서 그들의 신앙에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경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신전이 그 안에서 경배를 드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넘치는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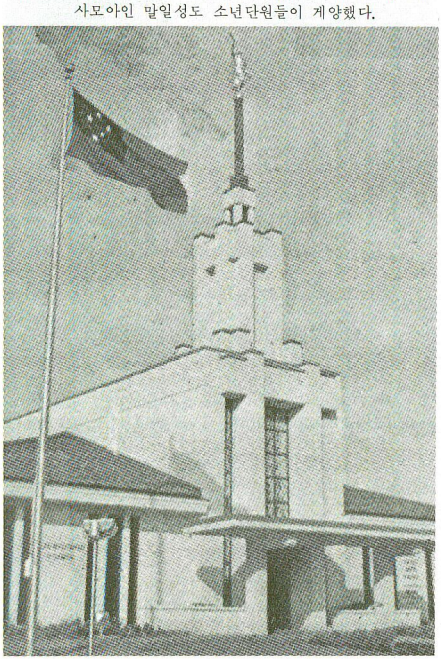
그로버그 장로는 정부와 사모아 사람들

에게 신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우리는 이곳 관리들인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구원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옳고 훌륭하며 정부의 모든 의로운 지도자들의 바램에 협조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전을 단지 아름다운 건물일 뿐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가 전하는 평화의 메세지 그리고 복음의 회복에 관한 진리에 대해 말씀했다. *

사모아 족장이 그로버그 장로에게 기증한 서부 사모아기를 사모아인 말일성도 소년단원들이 게양했다.



'선조들의 유산'을 되새겨 보게한 테리토리얼 무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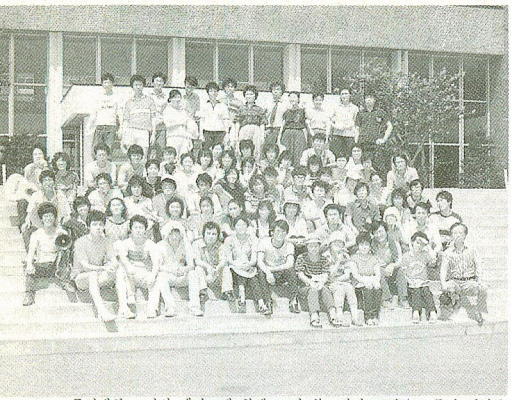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가 초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례 테리토리얼 무도회는 '47년 기념일에 정통적인 유산의 감흥을 더욱 고취시켜 주었다.

7월 23일 솔트레이크시티 주지사의 대저택에서 개최된 이 무도회는 솔트레이크 벨리에 처음 발을 디딘 개척자들에 의해 시작된 초기 지역(테리토리얼) 무도회를 기념하기 위해 6년 전에 구성되었다.

거의 70명에 달하는 개척자들의 아들과 딸들이 올해의 무도회에 참석하였으며,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을 비롯하여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명예 회원인 스터얼링 더블류 실 장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가 참석했으며, 그 밖에 특별 초대 손님으로 일본 대사인 요시오 오가와라, 유타 주지사인 스코트엠 매디슨, 솔트레이크시티 시장인 테드 윌슨 및 기타 지역 정부 관리들과 교회 신권 지도자들 그리고 '47년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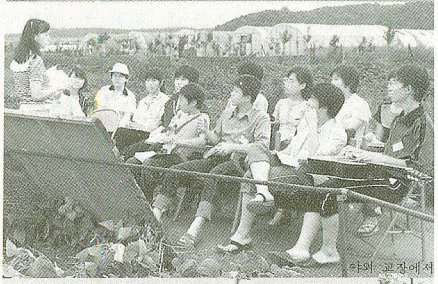
실 장로는 짧게 말씀을 하면서 유산과 선조들의 위대한 생각과 이상을 되새겨 볼 수 있게된 것을 감사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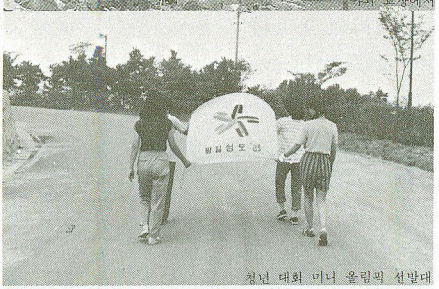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 함께 모인 북·강서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

잠깐 쉬는 사이

활동 모습



야외 교장에서



청년 대회 미니 올림픽 선발대

북·강서 스테이크

서울 북 스테이크와 강서 스테이크는8월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중앙 대학교 안성 캠퍼스에서 합동 청년 대회를 가졌다.

선교 사업과 신전 결혼을 주제로 약 90여 명의 독신 성인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 회서는 미니 올림픽, 신전 결혼에 대한 세미나, 선교 사업 세미나, 캠프화이어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두 스테이크 젊은이들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대회 마지막 날 가진 금식 간증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중요한 모임이었으며 오랫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인상적인 모임이었다. 참석한 독신 성인들은 선교사로 출발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였다. 한편 북 스테이크 소년 대회는 스테이크 내의 와드, 지부를 3개 지역 그룹으로 나누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각각 2박 3일에 걸쳐 가졌다. 녹번, 역촌, 불광, 금촌 지역은 장흥 밤나무 유원지에서, 충정, 서대문, 홍제 지역은 경기도 벽제 장미 농장에서 그리고 신촌, 모래내, 망원, 원효 지역은 경기도 일영 진달래 동산에서 가졌다. 각 그룹의 청소년들은 함께 생활하며 친숙하게 되었으며 세미나와 활동을 통하여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다. *

동대문 스테이크

경기도 가평군 마장리의 울창한 산림과 넓은 냇가에서 동대문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맑은 공기를 흠뻑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였다.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가진 이번 대회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무더위를 이기며 질서와 협동을 익히는 훈련을 받았다.

특히 각 와드,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취사를 담당하였으며 방문한 신권 지도자들은 영적인 말씀을 전해 주었다. 마지막 날 간증회에서는 이 대회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는 회원들이 많아 더욱 감명깊은 모임이 되었다. *

활동하는 청소년들

시원한 냇가에 발을 담그고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취사를 도왔다.

경기도 가평군 마장리 냇가에 모인 동대문 스테이크 청소년들

서울 지역의 각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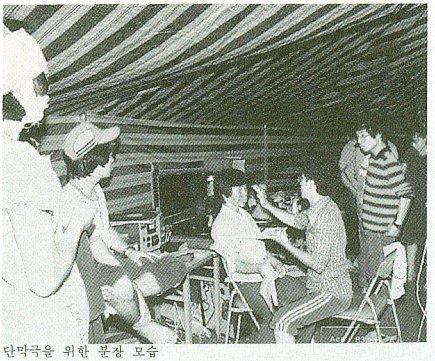
경기도 포천군 백노주 나무 그늘에서 함께 모인 독신 성인들

서 스테이크

지루한 장마가 끝난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백노주에서 50명의 서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은 교리와 성약 16편 6절을 주제로 '83년도 청년대회를 가졌다.

대회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협동심 그리고 우정을 돈독히 하자고 결의한 청년들은 끝까지 잘 실천하였으며 특히 독신 형제들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대회 중에 지도자들은 주로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

장작에 불을 붙이기 전에 즐거운 민속 무용을


단막극을 위한 분장 모습

서울 스테이크

서울 스테이크는 8월 1일부터 8월4일까지 소년 대회와 8월 8일부터 8월11일까지 청년 대회를 경기도 광릉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연수원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영적인 말씀과 참여한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진행으로 우정과 사랑을 느끼며 대회를 마쳤다. 소년 대회 참석 인원 : 약130명 청년 대회 참석 인원 약30여명. *

잠시 쉬면서

혹 풍선이 터지지나 않을까?

경기도 광릉 경희 대학교 연수원 잔디 위에 모인 복된 성인들

광주 스테이크 대회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광경

광주 스테이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 : 7)는 주제로 8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83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충장로에 위치한 스테이크 센타에서 가졌다. 총관리 역원인 브래드포드 장로를 비롯하여 부산 광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 그리고 박 병규 부산 선교부장 부부가 참석하여 영적인 말씀을 전했다.

이번 대회 기간중에 말씀한 연사들은 가정 복음 교육의 중요성과 말일에 회복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선교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회원 모두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것을 강조 하셨다.

대회를 마치고

8월 14일 일반 총회에서는 금번 창단된 광주 스테이크 소속의 구모라 합창단이 특별 찬송을 불렀으며 브래드포드 장로의 요청에 의해 폐회 찬송을 부르기도 하였다.

한편 스테이크 역원 지지에는 초등 협회 회장으로 박 춘임 자매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단 보조 서기로 정 일후 형제가 각각 지지 되었다.

참석인원 약 700여명(구도자 포함) *